

2) 월남자사건

주로 50년대 남파공작원으로 내려왔다가 자수하거나 은신한 채 20-30년간을 아무 활동없이 간첩행위를 할 의사 없이 살았으나 간첩으로 검거된 경우. 이들은 남한사회를 동경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 함주명 사건 : 1954년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되어 휴전선을 넘자마자 자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30여년만인 1983년 2월 고정간첩 혐의로 체포, 연행 45일 간 고문수사를 받고(수사관: 이근안) 1심에서 사형구형에 무기징역 선고받음. 본인은 간첩행위 혐의가 고문에 의한 날조라고 주장.

* 간첩 이창룡(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한창이던 당시 고정간첩단과 접선했던 소요를 부추길 목적으로 북한에서 급파된 간첩으로 알려진 인물)과 접선했던 이연중씨 등 18명이 체포된 사건(1980). 이연중씨는 45살 때 남파되었다가 북한과의 연락이 끊기면서 20년을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으나 1980년 5월에 발표된 이창룡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4개월 남짓 대공분실에서 혹독한 고문 끝에 8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91년 말 가석방됨.

3) 납북 어부사건

60년대의 낙후된 어선으로 어로작업을 하다가 어부들이 자기도 모르게 북방한계선을 넘거나, 납치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 경비정에 연행된 이들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2-3년을 억류당하며 남한사정에 대해 심문 받고, 견학도 하고 '학습'도 받게 된다. 이후 귀환한 어부들은 모두 수사기관에 무더기 연행되어 보통 1-3개월 가량의 엄청난 고문수사를 받고 '간첩'이 된다.

• 안장영 사건 : 인천 어부로 1962년 7월 어로작업 중 풍랑으로 파선되어

무인도에 상륙도중 피랍. 1개월간 북한에 체류. 15년 만인 1977년 2월 초에 연행. 이근안에게서 4개월 간 고문수사 받음. 그의 연행 1개월 뒤 그의 부인도 연행.

• 김홍수 사건 : 인천 어부. 1959년 5월 서해안에서 납북. 북한 체류 20-30일. 1963년 월에 연평도에서 2차 납북. 2차 북한체류 1개월. 그 후로도 선장으로 어로작업에 종사. 14년만인 77년 8월 24일 경기도형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불법 감금 2개월 동안 이근안으로부터 고문당함.

4) 재일동포사건

재일동포들은 남한이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것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조총련계 동포들과도 접촉하며 자라는 까닭에 남한인들처럼 북에 대한 적개심이나 공포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재일동포들은 수사관들이 간첩으로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대상인 것이다.

•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서승은 여름 방학을 이용, 동생 서준식과 함께 9일 간 북한을 방문. 1971년 2월 보안사에 연행되어 그해 4월 25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 서승은 이때 모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석유난로를 끌어안고 자살 기도, 온 몸에 중화상 입음. 동생 서준식은 7년 형을 마치고도 보안감호처분으로 10년 더 감옥살이를 하고 1988년 5월에 출감.

• 김태홍 : 재일동포 2세. 1978년 연세대학교에 거류민단 아버지의 권유로 입학. 1981년 10월 보안사에 연행, 당국발표에 의하면 1981년 초 20일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고 학생을 가장하여 학원에 침투했다고 하나 본인은

무죄 주장. 이밖에 김장호, 손유형, 김병주, 이헌치 등이 모두 같은 유형으로 무기 내지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받아 복역하였다.

5) 일본관련사건

국내 거주자가 취업, 유학, 여행 등으로 일본에 갔다가 그 곳에서 조총련계 동포와 직·간접으로 접촉하게 됨으로써 '간첩'으로 단죄 받는 경우. 조작의 혐의가 대단히 높은 유형이며, 사건수도 5공화국 시절에 대단히 많았다.

• 조상록 : 전남 순천에서 1973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으며, 1977년 4월 일본 명치대학교 대학원에 유학(국제정치학). 방학으로 귀국. 78년 1월 중앙정보부에 연행. 혐의는 북한 재일공작원으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 탐지, 누설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 22년 복역후 99년 석방.

6) 민주화운동관련 사건

해외로 유학, 연구차 나간 사람을 간첩으로 단죄하고 그가 관여했던 국내의 민주화운동에 탄압을 가하는 경우.

• 장의균 : 서강대를 졸업하고 개마서원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1985년 독일, 경도대학에서 상고사를 연구하던 중 조선대학을 방문하여 상고사에 대한 북한 자료들을 보고 통일문제에 대하여 교수들과 토론함. 귀국후 일본에 있는 운동권 동료 양관수(민청학련사건으로 서울대 제적, YWCA 위장 결혼사건 관련)에게 운동권 자료 보냄. 1987년 7월 5일 송파보안사에 연행되어 7월 30일까지 고문수사. 보안사는 그가 일본에서 만난 사람이 북한공작원이고, 조총련계의 조선대학을 방문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편지를 썼다는 점 등을 들어 '재야침투간첩'으로 규정하여 8년 구형.

7) 월북기도사건

전방부대에서 가혹한 탄압에 반발하여 월북을 기도하는 경우,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끝에 도피하는 경우, 막연히 북한을 동경하여 월북을 기도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이러한 동기로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가려다 체포되는 경우 모두 단독사범이며, 단순 '월북기도'를 간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다.

• 이태 : 1981년 9월 전북 부안군 위도 섬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선주로 부터 빛 때문에 인신매매 당한 같은 배 동료 한 사람과 매매당한 사람을 감시하는 자신의 부도덕한 처지에 분노를 느껴 같은 처지의 술집 여종업원과 섬에서 탈출기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치면서 "이북으로 가든 중공으로 가든 상관하지마!"라고 한 말이 월북기도로 규정되었음. 섬에서 탈출하고 저 인망 송진호 선장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 군사기밀을 탐지하며 제 2의 월북을 기도하고 있다 하여 81년 9월에 전북 부안경찰서 정보과에 연행됨.

8) 조직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경상도 통일혁명당 사건 등이 있다. 이 유형의 특징들은 간첩으로 검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관여하는 국내 운동단체에 탄압을 가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간첩사건은 적절한 시기를 선택, 대중매체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 재미 유학생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등이 미 국유학시 <해외한민보>라는 교포신문을 발행하는 전직 언론인 서정균에게

포섭되어 양동화는 평양에서, 김성만은 헝가리와 동독에서 각각 북괴요원들에게 간첩활동에 관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그 밖의 사람을 포섭하여 의식화 교육, 유인물 제작배포, 소요획책, 정보수집 등의 간첩활동을 수행, 그 밖의 관련 피고인들은 이들의 국내에서의 간첩활동을 방조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60-90일 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안기부 고문실에서 안기부에서 작성한 각본대로 진술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당했다.

이 사건의 경우 미국 고등법원에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89년 2월)

제 4장 출소 장기수에게 씌워진 덫 - 보안관찰법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만기출소한 비전향 정치범들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사회안전법'을 날치기로 통과하였다. 이는 재판도 없이 단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들을 강제 연행해 '전향할 때까지' 교도소 구금과 동일하게 구금시킬 수 있는 법이었다. 이 법은 89년 초 폐지되었으나, 사회안전법에서 보안감호는 삭제하고 보안관찰과 주거제한을 정교히 다듬고 형사벌칙 조항을 삽입한 대체입법인 '보안관찰법'이 1989년 6월 16일 공포되었다.

이 법의 대상자는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편의제공의 조항과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이 법의 미수, 예비죄와 구 국가보안법, 구 반공법의 위 조항, 그리고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구 국방 경비법의 일부 조항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그 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집행받은 사람들(제3조) 즉 출소 비전향 장기수들이다.

이 법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독립투사, 사회운동가들 중에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구금시키고자 만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구 사회안전법)과 이들을 감시, 감독하고 활동을 봉쇄시키기 위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현 보안관찰법)과 성격과 체계, 법률조항 등에서 유사하다.

보안관찰법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을 정부에서 지원이나, 계몽을 통해 재범을 방지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실지의 운영이나 내용은 감시와 관찰, 격리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 피보안관찰 대상자는 늘 대공과 형사의 감시 아래 철창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이 가지는 반 인권적 성격은 제 4조의 보안처분의 판단기준인 '재범을 할 위험성'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 심의위원회'에서 한다(제12조)고만 되어 있어 사법부의 판단 아닌 행정부의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미리 판단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보안관찰자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자신의 동태보고이다. 이 보고의 주요내용은 1) 3개월 간 주요 활동 사항 2) 3개월 간 행한 여행의 장소와 목적 3) 통신,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 대상자나 주요 인물에 대한 인적사항, 일시, 장소, 대화내용 등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제18조 1항~4항)이며 이러한 보고사항을 게을리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점이다.(제 27조 2항) 그밖에도 제 19조 1항의 피보안관찰 대상자들이 검사나 경찰관에 의해 '지도받을 의무' 및 '조치에 따를 의무'와 가족이 없는 출소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그 거소를 결정해주도록 된 규정(제 20조 3항, 시행령 제 26조)은 본인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채 그 거소를 정해주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이러한 규정과 감시 등은 이들을 또 다른 철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 5장 대응 및 구명활동

1.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1) 시민·인권 단체

지난 50여 년간 우리사회에서 수많은 비전향 장기수를 양산해 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국가보안법 제정 50년이 되던 1998년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운동은 국내 115개 사회단체가 망라된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와 '국보법 철폐 범국민연대회의' 등 양대 조직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서명운동과 단식농성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우선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중 특히 제 7조가 항상 독재정권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로 수구세력이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하고, UN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약 95%가 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여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상 7조 폐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최소한 7조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기조로 성립되었다.

반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주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는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하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제각기 흩어져 벌여온 국보법 폐지 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대회의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보법 폐지운동 흐름 속에 올해 6월 12~15일 평양에서 있었

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과 교류 분위기는 국보법 개폐운동을 주도해온 시민·인권단체들로 하여금 다시 전열을 정비하게 했다.

그 결과, 2000년 7월 21일 오전 민노총,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가협, 민변, 민교협 등 232개 시민·재야단체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존의 '국보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국민연대는 결성 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수배령에 쫓겨다녀야 하는 기이한 현실을 누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며 "국보법은 더 이상 법일 수가 없으며 이미 죽은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어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하고 사법부는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2) 정부

현 정권도 정권교체 초기부터 국가보안법을 손질할 뜻을 밝혀왔고,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함으로써 개폐 논의에 불을 붙인 셈이 되었다.

3) 국제적 압력

여기에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 1998년 우리 정부에 국보법 7조 위반 기소자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통보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또 다시 7조 폐지를 권고하는 등 국제적인 여론도 국보법 개폐에 힘을 실었다.

4) 국회의원회의

이같은 국내외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국회의원회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정부 참칭' 부분을 없애으로써 북한을 제외시키고 △7조(고무·찬양 및 이적단체 가입·구성)를 대폭 개정하며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 반대 태도를 바꾸지 않아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에 따라 다방면에 걸친 남북 교류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옴으로써 법 개폐 작업은 예상외로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사회 각계는 전망하고 있다.

5) 법무부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전면폐지 △'민주질서보호법' 등으로 대체입법 △7조(고무·찬양 등) 등 문제조항의 삭제를 통한 개정 △안보에 필요한 조항만 형법에 집어넣고 나머지 조항은 폐지 등 4가지 큰 방향을 정해놓고 사태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을 실제로 운용하는 검찰에서도 법이 개폐되기 전까지는 국보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보법 개폐 반대 의사를 밝혀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어

면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관심거리로 대두하고 있다.

2. 장기수 송환 추진 활동

1999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 30개 인권·종교·사회단체들이 모여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 단체들은 결성식에서 "새 천 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가 있다."며 "특히 비전향 장기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성식 이후 이들은 지속적으로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을 위한 방북신청사업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영상자료 제작 및 국제연대사업 등을 벌여왔다.

서울에서의 송환추진위 결성을 시발로 출소 비전향 장기수들이 기거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도시별로 송환추진위가 결성되었다.

2000년 3월 27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송환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광주·전남 송환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5월 3일 결성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대전·충남 송환추진위원회'와 부산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장기수 부산지역 송환추진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7월 15일 행사를 갖고 이들의 송환을 정부당국에 촉구하였다.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가진 남북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여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현재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옥, 구치소, 도형장 등의 구치시설에 이동하여 징계, 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 협정 97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송환되어야 한다'에 의해 복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법을 무시한 채 이들을 대부분 무기형이나 30년에서 45년까지 비인간적인 처우 속에서 장기구금 했다.

3. 국제적 지원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남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맞도록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와 불고지죄 조항인 10조를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 인권옹호 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무국도 6월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면위는 이 날 낸 성명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문제 해결, 남북한 경험 및 분야별 교류 등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공존을 위해서는 표현

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촉구했다. 사면위는 “국가 보안법의 모호한 조항 때문에 체포·구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남한에는 88명의 '정치적 수인' 가운데 6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2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제 1장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히브리서 13:3)

1. 고난모임의 시작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고난모임)은 고난 당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을 봅니다. 또한 허리 잘린 민족의 분단 현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고난모임은 여전히 인권이 묵살되고 1천4백여 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던 1991년 12월,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후 민족 분단의 멍에를 짊어지고 수십 년간 옥살이해 온 장기수·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평화로운 세상,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줄곧 힘을 모아 왔습니다.

2. 고난모임이 하는 일

1) 인권회복운동

이웃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고난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나와 교회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회
- 사건 조사와 석방 지원
- 구속자 영치금 보내기
- 양심수 자녀 장학금 지급

- 교도소 방문과 서신교환
- 무연고 장기수 후원과 자매결연

2) 평화통일운동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적 열정으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통일을 일구는 일입니다.

- 출소 장기수 복 송환 추진 운동
- 무연고 출소 장기수 방문과 생활지원
- 효도나들이
- 교회의 평화통일운동 자료 수집과 방법 연구

3) 교회갱신운동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입니다. 고난모임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는 교회갱신운동에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 고난운동 토론회
- 사회선교 방법과 사례 연구
- 감리회 열사 추모예배
- 교회문화운동

3. 2000년 고난모임이 할 일

1) 통일·인권 사업

- 구속자 영치금 보내기
- 교도소에 편지 보내기

- 양심수 석방 운동과 지원
- 양심수 자녀 장학금 지급
- 출소 장기수 생활비 지원
- 출소 장기수 방문 및 결연 운동
- 출소 장기수 복 송환 운동
- 출소 장기수 효도 나들이

2) 회원 사업

- 소식지 <고난함께>발간
- 지역 순회 기도회
- 후원회원의 밤

3) 『비전향 장기수 백서』 발간 사업

비전향 장기수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고난모임의 이 작업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4) 기획(수익) 사업

그간 고난모임만의 독특한 천달력·그림·양말·카드·티셔츠·십자가 등 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해마다 만들어 온 '고난함께 천달력'은 이제 고난모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 고난모임에서 일하는 사람들

- 이 사 장 : 박이섭 목사(신애교회)
 이 사 : 신경하 목사(아현교회)
 김진춘 목사(매원교회)
 윤문자 목사(새날을 여는 청소년 센터)
 김정권 목사(여주제일교회)
 임정덕 목사(새소망교회)
 정진권 목사(염창교회)
 박신진 목사(우산교회)
 박인환 목사(화정교회)
 김성호 목사(한빛교회)
 진광수 목사(문수산성교회)
 이광섭 목사(울면교회)
 문선경 권사(창천교회)
 최병천 권사(밀알기획)
 해외이사 : 송병구 목사(독일 복음교회)
 최종수 목사(미국 동북펜한인교회)
 총 무 : 최재봉 목사
 간 사 : 이미나, 나은

5. 이렇게 도와 주세요!

고난모임은 더욱 많은 감리교회와 평신도가 고난받는 우리 이웃에게 눈을 돌려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

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전향을 강요하던 그리스도인들만 봐 왔던 장기수와 양심수들은, 고난모임을 통해 어렵사리 마음을 열고 비로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고난 당하는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시대와 역사의 뒀안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분명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재정후원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후원 - 1구좌 당 1,000원 / 단체후원 - 1구좌 당 10,000원
 특별후원 - 영치금, 생활 지원금, 장학금 등

농 협	001-01-268591	김영란
국민은행	011-01-0358-264	김영란
우 체 국	010033-0110685	김영란
조흥은행	308-04-386234	김영란
주택은행	533302-94-116895	박수미

2) 편지 쓰기, 출소 장기수 방문, 소식지 발송, 연대활동 등을 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무국에서 제시하지 않은 참여 방법을 제안하셔도 좋습니다.)

전 화 (02) 393-4662 / 364-6076(fax 겸용)
 주 소 (120-65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사서함 52호
 전자우편 gonan@chollian.net
 홈페이지 http://my.netian.com/~ffts

제 2장 활동일지(1989~2000년)

1989. 4.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후원회'(가칭) 준비모임 구성 및 후원회원 모집
1989. 5. 소식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제1호 발행
1989. 6. 첫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월례기도회'
1990. 4. '고난받는 감리교인 가족회' 발족
1990. 6. 무연고 비전향 장기수 후원 시작
1990. 7. 미국 동부지역 '고동(고난동참)모임' 결성
1990. 12. 17. 출소 장기수 이경구 선생님 환갑잔치 및 월례기도회
1991. 1. 장기수가족협의회와 함께 무연고 장기수 20명 지원
1991. 6. 18. 장기수 석방과 후원을 위한 공동모임 결성
(KNCC 인권위원회, 양심수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회, 장기수가족후원회, 고난모임 등)
1991. 6. 분단의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1) 공연
1991. 12. 분단의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2) 공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정식 발족
1992. 1. 5. 기금 마련을 위한 '박영 성화전' 1·2
1992. 2. 21. 제1회 정기 평의회
1992. 5. 제1회 비전향 장기수 효도나들이 - 춘천
1992. 10. 고난운동 토론회
1992. 12. 분단의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3) 공연
1993. 3. 2. 제2회 정기 평의회

1993. 4~5. 제1회 인권교실
1993. 5. 제2회 효도나들이 - 도고온천
후원회원의 날 - 북한산 등반대회
1993. 6. 후원회원 배가 운동 및 하루 찻집
1993. 11. *분단의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4) 공연
1993. 12. 통일할아버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모금 시작
1994. 1~4.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김순환 선생 귀국추진운동
1994. 2. 제3회 정기 평의회
고난신학 정립을 위한 세미나 시작
1994. 4. 고난중창단 '창작 노래 테이프' 제작
1994. 5. 제3회 효도나들이 - 제주도
감리교 열사 합동 추모 예배
1994. 12. 분단의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5) 공연
1995. 2. 제4회 정기 평의회
고난운동 정책 토론회
1995. 3. <한겨레 21> 교도소 보내기 운동
1995. 5. 제4회 효도나들이 - 설악산
1995. 11. 분단의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6) 공연
1996. 3. 제5회 정기 평의회 ; 조직개편 결의
1996. 5. 제5회 효도나들이 - 지리산
1996. 9. 출소 장기수에 추석 인사
1996. 11. 제2회 인권교실
1997. 1. 수감중인 비전향 장기수와 1:1 편지 결연 사업 추진
1997. 12. 이사회 회합
1998. 3. 2. 재편 제6회 정기 이사회 ; 이사회 체제로 전환
1998. 9. 15. 3·13 및 8·15 특사 출소 장기수 환영예배

- 1998. 10. 19. 제6회 효도나들이 - 강화도
- 1998. 11. 16. 지역 순회 기도회(안산 화정교회)
- 1998. 12. 28. 제4회 운영이사회 ; 창립 10돌 기념 '인권상' 제정 결의
- 1999. 3. 2. 제7회 정기 이사회
- 1999. 4. 19. 창립 10돌 감사 예배(감신대 백주년기념관)
- 1999. 4. 출소 장기수 매달 정기 방문 시작(서울지역 중심)
- 1999. 8. 30. 지역 순회 기도회(서울 새소망교회)
- 1999. 10. 6-8. 제7회 효도나들이 - 태백·삼척·강릉·여주
- 1999. 12.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결성
(민가협, 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 고난모임 등 30개 단체)
- 2000. 2. 28. 제8회 정기 이사회
- 2000. 3. '비전향 장기수 북 송환 촉구' 감리회 연회 서명 운동
- 2000. 6. 8. 제8회 효도나들이 - 에버랜드
- 2000. 8. 15. 『비전향 장기수 백서』 발간

첨부자료 - 창립선언문

쫓기던 한 전투경찰이 겪은 양심과 절망 한가운데서 오늘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 한 지 만 3년, 이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세웁니다.

여전히 인권의 벽이 높아지고, 지금도 1400여 명의 양심수가 겨울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야말로 우리의 설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교회에도 신앙의 갱신을 통해 민족과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앞장서 깃발을 들었 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고난 당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 의 형상을 봅니다. 또 허리 잘린 민족의 분단 현실을 나의 십자가로 짊어진 이름 없는 작은 예수들의 행진을 응시합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고난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당당히 옹호해 내려는 합의에서 출발합니다. 또 그들의 걸음을 함께 걷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불철저했던 신앙과 교회의 갱신운동입니다.

둘째는 고난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나와 교회의 것으로 하고, 또 고난의 목적을 지원, 동참하려는 인권회복운동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적 정열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적인 이 땅에서 희년을 맞이하려는 평화통일운동입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하고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기독교 고유의 문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통분모인 분단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 익명의 그리스도인 등 모든 선한 세력과 힘을 나눌 것입니다. 한편 무한한 잠재력인 교회와 평직을 맡은 기독교인(평신도)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심을 운동의 주체로 바로 세워 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운동은 고난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인간화를 넘어 참 인간됨을, 분단을 넘어 평화로운 통일 세상을, 그리고 십자가를 나눔으로 기쁨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려는 이 땅에 뿌리내린 구체적인 신앙 체험이고자 합니다.

쉽지 않게 내딛은 걸음, 자신 없는 부끄러운 손, 그리고 내놓기 민망한 우리들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법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예의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이 그대로 가셨습니다.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1991년 12월 10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3

비전향 장기수의 삶과 그 실태

제 1장 비전향 장기수의 삶

■ 김익진 선생

민족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생은 1930년 7월 13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에서 태어났다. 선생이 태어난 땅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니었다. 참혹한 땅, 자유롭지 못한 식민지였다.

민족의 비극만큼이나 선생의 어린 시절도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일본 놈들의 횡포는 극에 달한 시기였다. 일제는 농촌에 내려와서 식량을 공출해 갔고 심지어 밥을 먹고 있는 밥상을 뒤집어엎고 낫그릇, 낫수저까지 빼앗아 갔다. 동네 누나들이 강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지르는 비명도 들었고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는 동네 아저씨들의 모습도 목격했다. 그 중에서도 징용되어 끌려가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동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해방을 맞이했다. 태어날 때는 남의 나라 땅, 비극의 땅이었지만 이제

는 우리의 땅, 해방의 땅이었기에 기쁨이 넘쳐 났다. 선생은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땅을 일구며 내 조국을 건설하리라는 부푼 꿈을 꾸었다. 선생이 살던 고향 땅에도 자위대가 조직되어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였고, 마을에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마을사람 스스로 새 조국을 건설하자는 의지와 꿈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일본이 몰러가니 미국이 들어 왔다. 그들은 민족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이제 막 우리 조국을 우리 스스로 일구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려 하는데 미국은 이러한 순진한 염원을 총으로 짓밟았다. 일제 때 같은 동포를 잡아가고 괴롭혔던 친일파들을 앞세워 탄압을 하고 민족의 꿈을 깨뜨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울분이 치솟았다. 미군의 탄압으로 인해 이웃 농민들과 함께 선생은 산으로 쫓겨갔다. 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힘을 모아 지서를 습격하면 일제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도 산에 올라 농민들을 찾아내고 가족을 괴롭혔다.

좌익 우익이란 이념을 떠나 우리 농민들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남조선은 이미 미국의 손에 넘어갔다. 또 다시 일제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이미 북에서는 농민에게 토지가 무상으로 분배되고 일제의 잔재도 청산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하며 선생은 언젠가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기 위해 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전쟁이 발발하자 온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 가운데에서 선생은 고향에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고 인민군이 퇴각할 때 그들을 따라 북으로 올라갔다. 북한 땅에 발은 내딛은 52년, 학교에 들어가 공부할 것을 권하여 남포 원예전문학교에 들어갔다. 원예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고향 영덕에 살 때 과수원을 하면 잘 산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북조선에도 과수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부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

다.

졸업한 후 선생은 함경남도 신상군 인민위원회 기술부에서 일하다가 65년 함흥공산대학에 들어가 더 많은 공부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1년 뒤 당의 소환을 받아 대남 훈련을 받기에 이른다. 선생은 마침내 1969년 6월 10일 해상안내원으로 남파되었다. 그러나 그 임무를 완수하기도 전에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미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격렬한 총격전으로 오른쪽 다리에 깊은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3일간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국군수도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에야, '아, 내가 체포되었구나.'하는 현실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곧바로 서빙고 지하실로 끌려갔고, 저들은 피투성이 상태에 있는 선생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곧바로 신문부터 시작했다. 지하 조사실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고문하는 소리와 그 고문 때문에 지르는 비명소리가 가득했다. 선생에게도 곧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고 일주일도 지나도 전향하지 않자 미군부대로 옮겨 조사를 받게 되었다. 너무 부상이 깊어 취조가 불가능하자 부평에 있는 미8군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한국인 간호사와 미국인 의사는 다리를 찢고 수술을 하려다가,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 전향하라."고 한다. 그러나 선생은 전향할 수가 없었다. 내 목숨 이어가기 위해 조국을 배반할 수가 없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뜻을 굽히지 않자 저들은 수술을 도중에 중단하였고 상처 입은 상태로 다시 미군부대로 옮겨졌다. 4개월 간 미군부대에서 취조를 받은 후 보안사로 넘겨졌고 수도경비사 지하실에서 또 2개월 동안 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마침내 무기형을 받고 형무소로 옮겨지게 되었다.

형무소에서 들어와 선생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자신이 치료도 받

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보다는 여전히 미군에 의해서 조종 받고 굴복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 모습에서 선생은 커다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한 번은 조사실에서 한국군 소위가 나를 취조를 하는데 미군 하사가 조사서류를 가지러 왔어요. 그런데 그 한국군 소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군 하사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소위가 하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니깐. 그 소위는 ‘자기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참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선생은 70년 초, 안양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해 왔다. 다리가 아파 걷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니까 겨울나기가 참 힘들었다. 상처 입은 다리가 몹시 시리고 아팠다. 동상에 걸린 테다 전향공작 때 입은 고문 후유증으로 굶아 버린 것이다. 다리가 굶아 썩어갔다. 그래도 간수는 약을 갖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은 운동하러 나갈 때 다리를 절룩거리며 나아가 조그만 유리조각을 주워 들고 왔다. 그리고 옆방에 선생 노릇하다 들어온 김규철씨의 옷을 청소부를 통해 받아, 유리조각으로 굶은 다리를 째어 고름을 짜내고 그 옷을 찢어 고름을 닦아냈다. 엄청난 양의 고름이 나왔지만 약은 없었다. 간수에게 약을 부탁했지만, 그는 들은 채 하지 않았다. 그 간수는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교회 집사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생각만 했지 선생에게 필요한 약은 갖다 주지 않았다.

“나는 그 때부터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은 혼자 고름을 짜내고, 어릴 적 어머니가 보리밥에 비누를 섞어 발라 준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상처부위에 발랐다. 그렇게 해도 상처는

좋아지지 않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치료를 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생은 그 때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환자가 단식을 하니 3일만에 쓰러졌고 마침내 간수가 와서 선생을 병원으로 옮겨 주었다. 병원에 옮겨져 상처 입은 다리를 의사에게 보여 주었더니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병원에서 수술 받으려고 벌려 놓은 그대로 방치된 채 무릎에 부서진 뼈 조각들이 그냥 남아 있는 게 보였던 것이다. “사람이 이지경이 되도록 병원에 안 데려 왔느냐.”고 말하면서 의사는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었다. 상처 입은 지 수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정상적으로 치료되기엔 늦은 때였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오른쪽 다리는 지금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

수술 이후 오른쪽 다리는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리고 아팠다.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견딜만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더 아팠다. 게다가 신장결석과 협심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감옥에서 여러 차례 실신하는 바람에 93년에는 대전교도소 의무과장이 직접 사면을 건의했을 정도였다.

지난 30년 간의 감옥 생활 내내 선생의 오른쪽 다리에 난 상처는 마치 민족 분단의 상처처럼 시리고 아팠다. 선생의 몸뚱이에 난 상처야 견딜 수 있었지만, 이 민족 한가운데에 난 분단의 상처는 선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고문과 전향공작에도 굴복하지 않은 것은 선생의 다리에 난 상처보다 더 큰 민족의 상처를 씻기 위해서였다. 바로 통일,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 30년 동안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디어 냈던 것이다.

지난 99년 2월 25일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바깥 세상도 여전히 감옥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이 한반도는 여전히 감옥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이 남조선에도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분단의 상처를 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

다는 것은 선생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나는 교도소 밖을 나가면서 교도소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또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요.”

선생의 마지막 바람은 역시 통일이다. 지난 30년 동안 다리에 난 상처를 감싸 안고 살아오면서 한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그것은 통일이다. 마지막 여생도 민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해 바칠 것이다.

“그저 사상을 떠나서 마음을 합쳐 우리 시대에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 세상은 남과 북,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놈 시절, 미국놈 시절에 느낀 것이지만, 외세가 우리나라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이 올 수 있어요. 통일이요.”

선생의 다리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 가듯이 우리 민족의 분단의 상처도 남북, 북남 온 민족 백성들의 손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 양정호 선생

통일은 백성의 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선생은 1934년 4월 3일 경남 양산군 동면 여량리에서 태어났다. 15세 어린 나이 선생은 이미 민족을 알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다. 그 때 조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남한은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하고 단독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민족 분단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이고 고착화시키는 반민족적 행위였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당시 선생은 부산공업학교(현 부산공고) 학생 신분으로 부산지역 민주청년동맹(민애청)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청년학생들과 힘을 합쳐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싸우기도 했다. 단독선거 반대의 뜻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봉래산에 올라가 봉황불을 질렀다. 그러면 그 봉화는 오대산으로 북으로 올라갔다.

선생에게 단독선거 반대라는 신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에 대한 신념이었다. “전쟁 이전에는 38선이 그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친미사상을 가진 친일 세력들이 단독정부를 수립하려 했을 때,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것은 민족을 망치게 하는 일이라고 외치며 결사 반대했지요.” 그 과정에서 함께 하던 일부 동료들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그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다. 그 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9월 30일 2차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국군으로 참전하게 된다. 단독정부를 수립해 민족 분단을 고착화시킨 남조선의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전투 중 그가 속한 부대는 평남에서 퇴각과 전진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부대를 이탈하여 인민군에게 투항한 선생은 50년 12월 인민군에 자원 편입되어 통신중대 분대장으로 복무하다가 57년 제대했다. 52년에 노동당에 입당하면서 그는 비로소 북한 인민이 되었다. 제대 후 김책대학 통신학부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였으며, 청진제강소 기술 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59년 같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무용수로 활동하던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다. 남한 출신으로 부모 없이 혼자 결혼을 할 때, 부모생각, 고향생각이 참 많이 났고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2남 1녀를 둔 가정은 행복했다. 그런데 결혼 7년만인 1966년 4월 당 연락부의 소환으로 1년 동안 초대소에서 교육을 받았다.

1969년 6월1일 부산에 사는 유해원이란 사람을 포섭하여 북으로 소환하려는 목적으로 남파되었다. 본래 선생의 남파 목적은 부산에 사는 청년학생을 포섭하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3개월 동안 부산에 머물러 있었다. 일이 여의치 않자 의형제를 맺은 유해원을 먼저 포섭하여 북으로 가기로 약조를 받아 놓고 기다리던 중에 그가 그의 부인에게 북에 갔다 오겠노라 말하니 부인이 울고불고하는 바람에 발각이 되어 노출되었고 마침내 체포되기에 이른다.

체포되어 열차(맹호)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 정보부로 후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뒤에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당의 강령인 조국의 통일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어 당의 소환에 따라 남파되었습니다. 그

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잡혔고 나는 당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수치심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이대로 잡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정보부에 후송되어 여러 군대를 깨매었고, 온 몸이 수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호라는 정보부 요원이 신문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견딜 수 없는 고문이 이어졌다. 다시 미군부에서 6개월간 신문을 받고, 그 지긋지긋한 서빙고에 가서 또 공갈을 받았다.

“온갖 회유와 신문이 자행되었지만 나는 당원으로서의 신념을 지켰고 지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통일과 자주적인 국가건설이 당면 의무였으니까요. 내가 저들에 굴복하면 그것은 곧 미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자주적 조국 통일을 불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 2월 마침내 정보부에서 서울 구치소로 넘겨졌고,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2, 3심에서 무기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였다.

대전교도소 독방에 던져진 선생은 기억하기조차 하기 싫은 그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독방에 홀로 갇혀 지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전향 각서를 쓰고 그 흑독한 독방문을 박차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방의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1973년부터 소위 '전향공작반'을 조직하여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전향공작을 자행하는 것이었다. 여든이 넘는 어머니를 통해 전향을 설득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 고향에 있는 6남매를 통한 공작보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든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는 참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나는 불효자이지만, 조국 앞에서 나는 참된 아들로 남고 싶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가슴에 못을 막은 그 날, 독방에 갇힌 선생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 없을 만큼 이처럼 가슴 아픈 것이란 말인가.

“내가 감옥에서 가장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팠던 것은 역시 어머니를 보았을 때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전향하지 않은 것은 우리 후손들만큼은 평화스런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가게 해야 하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어요. 아마 저 세상에 계신 어머니도 지금 저를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 후 선생과 동료 장기수들은 식량을 줄이는 것과 구타와 같은 정부의 조직적이고 잔인한 전향공작에 맞서 앉아서 당하지만 앉았다. 74년부터 선생과 동료들은 생활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들어갔고, 전향 강요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을 벌려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기절하는 이도, 죽어간 이도 있지만 마침내 전향 공작도 약화되고 식량도 늘어나고 생활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 때, 혹독한 감옥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웠어요. 강압적인 전향과 생활이 조금씩 개선되어 갔을 땐 아직 우리도 살아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은 남조선을 바라보면 안타깝다고 말한다.

“남조선은 여전히 민족의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전후 50년 동안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조정 받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식민지성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자주정신을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평화적인 조국통일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북조선에 대한 생각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북조선이요? 북조선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도 개방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온정리가 무엇하던 데입니까? 바로 해

군의 군사 요충지 아닙니까. 그것을 허물고 그곳으로 남조선 동포를 받아 들여 금강산으로 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남조선의 경제인, 종교인, 정치인 등이 북조선에 들어 온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의 수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개방의 표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이 서서히 남조선을 받아 드리려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면 남조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고, 그리고 미군을 철수시켜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변화하여 서로 다가서야 하지요. 그래야 통일을 할 수 있어요.”

철심을 바라보는 선생은 통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정부 차원에서만 하려 하지 말고 다 자기 일로 여기고 모든 백성들이 단결된 의지를 한데 모아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은 민중, 학생, 종교인, 경제인 등 양심적인 생활인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의 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시설이 어떻게 철수되었습니까? 바로 백성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없앤 것 아닙니까?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미국의 놀음에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남과 북, 북과 남이 하나로 합치면 우리는 자주적인 조국 건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국민의 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선생의 이 마지막 절규가 남과 북 모든 백성들의 가슴속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통일은 생활 속의 통일이야요



“북반부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정(情)이 살아 있어요. 내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남한에서 생활했는데,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심지어 부자간에 이자를 주고받으며 돈을 빌려주고 딸까지 팔아먹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천 년의 신라가 왜 망했습니까? 부패와 타락이 그 원인이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인류를 망치는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장병락 선생은 1934년 7월 25일 원산시 와우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학교도 다녔다. 12세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아직 어려서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랐다. 원산공업중학교를 졸업하고 원산고급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50년에 인민군 해군하사관학교에 지원하여 입대하였다. 전쟁 때에는 북에 계속 남아서 해군으로 참전하였고 해군이면서 육상 전투에도 참전하였다. 지금도 6·25 전쟁은 해방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50년부터 59년까지 인민군 해군으로 복무하였다. 기술병은 4년, 보병은 3년 근무해야 하는 인민군 복무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복무하였다. 후배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53년에 노동당에 입당하였고, 제대와 동시에 당 중앙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고 연락부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았다. 그의 임무는 대남 공작선의 기관장이었다. 61년 2월에 결혼하고 그 이듬해(62년) 4월 5일 남파한 후에 체포되었다.

“결혼하자 곧 애가 생겼어요. 12월에 아이를 낳고 그 다음해 4월에 체포되었으니 백일 된 아이를 남겨 놓고 지금까지 북에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내 아이는 백일 된 갓난아이이지요. 제 처요? 남편이 대남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과부 될 각오를 했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고향 원산에서 의료계통에서 일하고 있겠지요. 그 일을 하고 싶어했으니까요.”

선생은 이미 잡힌 김정기라는 공작원이 고문에 못 이겨 접선 날짜와 장소를 불어 체포되었다. 1접선이 실패하자 2, 3 접선 장소로 옮겨갔는데 2접선 장소에서 완전히 포위되었다. 육지로 들어와 북상하던 중 5일만에 5명의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잡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보부에서 그 공작원에게 ‘네가 죽이라면 죽이고 네가 살리라면 살리겠다.’하며 어찌하겠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살려 두라고 해서 살았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 당시에 체포된 5명중에 1명은 대구교도소에서 혈압으로 죽고, 2명은 7·4공동성명 이후 줄기찬 전향공작에 의해 89년에 전향을 하고, 1명은 위궤양이 악화되어 91년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선생이 99년 2월 25일에 석방되었다고 한다.

“가장 큰 위기는 뭐니뭐니 해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전향 공작을 할 때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심지어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독방안에 깡패들을 들여보내 밤에 때리는 일도 있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했지만, 2~3명 죽어가니까 이런 방법으론 안되겠다 해서 그만 둔

적도 있어요. 언론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중앙정보부 대공실장에 의해 비밀리에 자행되었죠. 서준식이 광주교도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일본 사회당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지, 그 때까지는 밖의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었으니까요.”

선생은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수마찰, 요가, 그리고 충분한 수면으로 혹독한 감옥생활을 견디어 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아직도 하루 하루를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

“전향하지 않은 이유요? 북에 남아 있는 가족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북에서 나서 북에서 자랐어요. 조선노동당과 수령동지의 품에서 낳아서 자란 사람이에요. 정치적 생명을 준 것은 당과 수령입니다. 인간이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정치적 생명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 중에서 정치적 생명을 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요. 저는 육체적 생명은 버릴 수 있어도 정치적 생명은 버릴 수 없었지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전향하지 않았어요. 북의 가족은 둘째 문제입니다.”

선생은 남한 정부에서 한달 생활비로 지급되는 19만 5천 원으로는 살 수 없어 나눔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장기수 할아버지들과 취로 사업에 나아가 생활비를 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런데 남조선 사람들 중에 일하지 않고 먹고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칠십이 다 되었어도 제가 일하는 건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공원정리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풍초를 아무 데나 버리고, 그걸 주으려고 하면 오히려 노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말세구나, 이젠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조선 사람들이요? 너무 개인주의적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애국이나 국가, 조국 같

은 단어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까? 저들에게 애국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에 물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무슨 통일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슴 아플 뿐입니다.”

선생은 감옥에서 배운 것보다 밖에 나와서 본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 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한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남조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선생은 다시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말한다.

“정치가 타락했듯이 교회도 부패 타락했어요. 남쪽을 보면 십자가가 수두룩한데, 아마 인구비례해서 남쪽이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을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왜 남조선은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리를 목적으로 교회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일반 기업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가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는 성직자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진짜 목사, 진짜 교회는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에게 뭔가 도와주면 제 어머니는 너는 크면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하곤 했어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머리 속에는 목사는 좋은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셨던 거지요. 진짜 목사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민족의식과 통일운동을 하는 목사와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족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군을 철수해서 상호 대화로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사상에서는 주체, 정치에서는 자주, 경제에서는 자립, 군사에서는 자위를 실천하여 왔으며,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왔다고 보는 것

이다. 그리고 자주적 국가 건설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거름이라고 보는 것이다.

선생은 그러나 남조선의 일반인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말해 주어야 해요. 북조선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을 갖고 있어요. 통일만이 남북, 북남이 살길입니다. 미국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되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만이 믿을 수 있고 힘을 모아야 이 무서운 세계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물론 선생은 지금까지 통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통일을 이루는데 남은 여생을 바칠 각오이다. 그러나 통일은 어떤 거창한 운동이나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통일운동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이요. 남북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집회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골목 청소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내 행동이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통일운동입니다. 바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말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이러한 통일운동을 하면 언젠가는 밝은 세상, 우리가 바라는 평화적인 민족 통일, 조국 통일이 2000년의 몇 해내 꼭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 우용각 선생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끼리도 통일이 안 되었어요



우용각 선생은 41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김선명(45년), 안학섭(43년) 선생보다는 짧은 햇수지만, 참으로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선생은 평북 영변군 팔월면 천냥리(송화리)에서 1929년 음력 10월 10일 태어났다. 고향 영변은 바로 소월의 시 '진달래'의 고장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자랐지만, 39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양으로 옮겨, 조부모님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오늘날의 중소기업쯤 되는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는 문방구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선생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자립을 했다.

선생은 평양 제2공업학교를 3년 다니다 중퇴했다. 일제는 이 공업학교를 없애고 목재 공예과를 만들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여러 가지 동원 사업이 많았는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일본 놈들과 싸워서 정학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일이 있는 뒤 6개월 지나 신의주공전이 생겨 그곳에 다녔다.

해방이 되자 평양시내에도 자치조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조국에 개선함으로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무엇보다도 일제청산 작업이 강행되었다. 그 당시는 사회주의 단계가 아

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 단계였던 것이다. 이 해방정국에서 선생은 공청(공산청년) 사업을 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부를 했다고 한다. 평양경제연구소(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로 일부 편입)에 입학하여 49년까지 다녔고, 49년 11월경에 군속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가량 공부를 하다가 6·25를 맞았다. 비전투 요원으로 참전하였던 선생은 대남 대미 사업을 위한 인민군 내의 부서에서 일하였다.

“내 사업은 남쪽에 있는 통일전선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체포될 때까지 그 기관에서 일했지요.”

선생은 대남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남조선을 왕래하다가 여섯 번째인 58년 7월에 울릉도 서북쪽 해상에서 체포되었다.

“58년 7월 12일 울릉도와 삼척 사이, 직선거리로 치면 울릉도에서 4~5마일 떨어진 바다 위에서 해군함정에 체포됐어요. 임무는 해상경비 상태를 살피는 것 정도였습니다. 당시 남한에서 구축함을 수입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동해항을 새로 군항으로 만드는 시점이었어요. 무장력이 얼마나 강화되는가를 알아보고,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륙계획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부지기수였어요. 쌍방이 다 그랬습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 들어가 사고나거나 체포된 건이 한 달에 수십 건이나 되었으니까요. 그 때는 해군방위력이 양쪽 다 그저 그랬으니까요. 60년대 초까지는 혼돈기, 군사적 안정기를 찾기 위한 과도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생긴 일이었어요.”

체포된 선생은 지금의 화신백화점 근처 언덕에 있는 해군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곳에 커다란 지하 갱도가 있는데 그 안은 상당히 추웠다. 7월인데도 서리가 끼어 있을 정도로 추운 곳에서 팬티 하나 입고 파카를 입은 취조원들에게 심문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러 구타를 가하기도 했지만 견딜만했다. 1심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기형

을 받고 69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무기형이 확정됐다. 선생은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없어 간첩 미수죄로 기소되었다. 해상정찰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잡힌 것이지 육지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선생은 곧바로 서대문교도소에 압송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선생은 4·19를 맞이하였고, 얼마 뒤 박정희 군사 쿠데타 총소리를 형무소에서 들었다. 박정희가 들어서면서부터 전향공작이 더욱 심했고 노골화했다. 72년 7·4공동성명 이후 73년 8월 전향 전담반이 생겨 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교도과장 밑에 전담반장이 있고, 그 밑에 전담교회사가 있어 수행자 몇 명씩을 담당했어요. 어떻게든 전향시키라는 것이었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북에서 나온 사람, 여기서 자생적으로 활동한 사람, 기타 일시적으로 북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등 3가지로 선별해 각기 다루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고문에 대해선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목사라고 자칭하는 대전교도소 교무과장이 몽둥이를 들 정도였으니까요. 특이한 것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4년 5월 서준식씨가 우리와 함께 징역을 살았는데, 무척 고통 당했어요. 오죽했으면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 했을까요. 혼자만 면회할 수 없다며 어머니 면회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장에게 가서 꼬치꼬치 따지니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본에서 사회당 국회의원에게 얘기하여 일본에 알려졌고,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후 물리적 고문이 형식적으로 중단됐고, 그 뒤로는 간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은 전향공작이 한창일 때 물리적 고문을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물었는데 이러한 몸부림으로 무려 21개의 이빨이 망가졌다고 한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큰 위기는 동지들이 전향하고 나갈 때였다.

“나는 북한 출신이라 여기에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을 동원한 전향공작

을 하지 않았지만, 동지들의 전향은 정신적 위기를 맞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선생은 통일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전향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전향이라는 것이 뭘니까? 내 의지와 양심을 바꾸라는 건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내 생명을 포기하란 말과 같습니다. 통일을 하려는 사람이 반 통일의 악법들이 많은 이 남조선에 전향을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통일운동을 위해 감옥 산다고 생각하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감옥 안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선생은 자기 성격이 낙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외세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성과 같은 것이라 보았고, 이러한 민족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통일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선생은 북에 어머니와 처, 아들 하나를 두고 내려왔다. 아내가 살아 있다면 76살이고 아들은 45살이다. 최근에 선생은 남쪽의 아들 뺄 되는 청년을 친구로 맞이했다.

“편지가 한 번 왔는데 자기도 외롭게 살았다면서 할아버지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도울 일이 없느냐고 해요. 그 뒤 두어 번 면회하면서 친해졌어요. 아들 돌잔치 사진도 받아보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됐지요. 양아들을 삼은 것은 아니지만 외로울 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여름'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남북 양쪽 다 서로가 합의한 원칙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북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준해 법제화된 지 오래지만 남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서 북에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누가 곧이 들겠는가고 반문한다. 이런 면에서 남한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조차 통일이 한됐다는 것이었다. 선생이 지난 2월 25일 석방된 이후 짧은 감옥 밖의 생활이지만,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집회나 토론회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참석을 해 보고 느낀 것이었다.

“옛날에는 노동운동, 인권운동, 학생운동 하는 단체들이 단합이 잘돼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말로는 원칙을 세워 지킨다 하지만, 각각 정당, 정파를 만들면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부조직의 통일 열망을 상부조직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군요.”

남은 여생을 통일운동밖에 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선생은 하루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동료들과 생활해 나가기 위해 컴퓨터를 배워 볼까, 자동차를 배워 장사라도 해 볼까,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언제까지나 후원단체들의 신세만 지며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 있는 동안 현실적응을 빨리 해 살아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북송이요? 조건부 북송은 반대입니다. 어디까지나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 차원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남북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보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고향에 가서 살라는 호의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일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입니다



박완규 선생은 1929년 4월 10일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데다 어머니마저 5살 때 돌아가셨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당숙이 학비를 대주어 청주상고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선생의 3남매는 서울에 있는 당숙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선생은

당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당숙은 외정 때 보성전문 학교(고대) 법과를 나와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해방 후 민족운동을 했다. 서울로 올라와 경성제일고등학교(경기고) 동창들과 회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었다. 선생은 당숙의 회사에서 3년 간 일을 했다. 그 후 전쟁을 맞이하자 50년 7월 의용군에 입대하여 곧바로 평양으로 올라가 훈련을 받고 참전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청년들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느 쪽이든 군에 가야 했어요. 내가 다니던 청주상고가 학생운동이 활발했는데, 나는 그곳에서 이미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남한으로 가지 않고 북한으로 올라간 것은 사회주의 사회가 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전쟁 후 57년까지 인민군으로 복무하다가 제대와 동시에 군도매소(유통기관) 재정 책임자로 일했다. 그리고 63년 평양상업대학을 졸업하고 국

영기업소의 재정회계 부서장으로 일했다. 선생은 당시 북한 사회주의 관리체계에 대해 해박한 실증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진실을 왜곡한 얘기가기도 하고요.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활의 커다란 타격을 받지요. 사회주의 국가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작업량을 주고 일을 완수 또는 초과 완수하면 그에 상응한 노임을 지불합니다. 즉 도급 임금제이기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하여 또 채산경쟁운동이 체결되어 있어 초과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요즘 남한 사회에서 일 안하고 먹고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찌면 이것이 자본주의 모순의 한 측면이지요.”

그는 58년에 결혼을 했다. 남한에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일가친척이 없어서 직장 책임자가 보호자가 되어주어 결혼을 했다고 한다. 무일푼인 선생을 직장 동료들이 아가씨도 주선해 주고 결혼비용도 모아주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북에 처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큰 녀석이 60년 생인데 아직 소식을 모릅니다.”

선생은 67년 남조선에 왔다.

“남조선 출신이니까, 친척들을 만나보고 오라고 당에 소환되었어요. 내려와 보니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더군요. 저는 아무도 못 만났지요. 그런데 그때 함께 내려온 일행은 3명이었어요. 일행 중 한 사람의 가족이 밀고를 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선생은 1심에서 15년을 받고 2심에서 무기로 확정되었다. 1심의 형량이 낮은 것은 간첩행위를 하지 않고 고향에 와서 친척만 만났기 때문이었다. 월북자 가족으로서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온 죄밖에 없기 때문에

간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기형을 선고받았어요. 가족 만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주장을 했지만, 그들이 저에게 묻더군요. 그럼 지나가는 남한 비행기를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간첩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억지주장이지요 속담에서 말하는 소가 웃을 일이지요.”

그 때부터 시작된 감옥생활은 참으로 끔찍했다. 특히 그 당시 인권이란 말도 없고 기아와 비인도적 정책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기에 감옥생활은 참혹했다.

“교도소 안의 쥐를 잡아먹은 사람이 있었을 만큼 굶주림에 시달렸던 시절, 야만적인 전향공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 면회 편지라고는 일절 없이 지내야 했던 고독한 날들... 혹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월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사회 정치적 의식이 남달리 투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분단과 전쟁의 상흔이 너무나도 컸기에 통일에 대한 갈망으로 미치도록 심장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75년 감옥 생활 5년 만에 급성 폐렴에 걸렸다.

“밥이 4등급으로 콩과 보리, 그리고 무장아찌와 시래기 소금국이 전부였어요. 의학적으로 보아도 3년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일반수에게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주었지만 좌익수에게는 4등급이 지급되었으니 감옥 안에서 죽으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3일 동안 완전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밤에 의사는 오지 않고, 나중에 간병인에 의해 의무과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가슴이 시커멓게 멍든 것처럼 나타났다. 급성 폐렴과 늑막염이었다. 기침을 하면 입에서 고름을 토해내니까 의무과에서는 아예 죽는 것으로 생각해서 치료도 안 해 주고, 심지어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

려 줄 정도였다. 그때 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죽어 가는 환자에게 또 전향을 강요한 것이다.

“의무과장이 찾아와서 그래요. ‘당신은 중환자이니까 전향을 하라.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병사에 입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70년대 중반부터 마이실린 등 좋은 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전향하라 강요했지요. 그래도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향은 하지 않겠노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입원실에서 감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혈관주사 2대만 넣어 주었어요. 생명은 빨리 끊어지지 않고, 2년 동안 계속되는데, 어느 날 기침을 하니깐 핏덩어리가 속 나왔어요. 그게 끓었던 덩어리가 빠져 나온 것이지요. 그 대신 끓었던 곳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잘 먹어야 메꾸어지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도 고혈압과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선생은 갈현동 제2만남의 집에서 다섯 분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동료 장기수 선생들은 취로사업 등으로 노인들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나는 집안 생활을 도우며 아프면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다 먹는 게 전부지요. 30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생긴 병인데 쉽게 낫겠어요.”

건강을 잃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선생에게서 남북의 대결과 외세에 짓눌린 민족의 상처 난 가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아마도 선생의 건강은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날 비로소 완치될 것이다.

“왜, 전향하지 않았느냐고요. 글썽요. 남에서도 살아 보았고, 북에서도 살아 보았지만 만민이 평등한 사회는 자본주의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는 돈 가진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것이기에 평등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과 남을 해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부패

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경제적으로 덜 풍족해도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남한과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남한이요? 다 알다시피 외세에 의존하여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 식민지는 직접 통치했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남한 정부를 앞세워 그 정부를 미국이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고 보아요. 북한이요? 지난 4년 간의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인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도적 모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농업정책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연재해에서 온 것뿐이지요. 그래도 북조선은 민족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한 사람들도 같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생은 4년 전부터 한 젊은 여성과 편지 왕래를 했다고 한다. 서울 상도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길수씨(31)를 통해 세상의 단편 단편들을 익혀 나가던 선생은 출소 후 며칠 지나 자신을 찾아 온 박길수씨와 첫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전쟁세대인 우리 세대와는 달리 이남의 젊은 청년들에게서는 극단적인 반공반북의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앞으로 통일 세대가 될 민족의 동량 아니겠습니까? 민족화해와 통일 정신을 청년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는 것이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호관찰법으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선생은 통일운동을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남한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민족의 임무라고 말한다.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노구의 몸임에도 여전히 통일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

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요. 미국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북한도 남한도 원치 않는다고 봐요.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 양자가 다 잘 알지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젊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민족 대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통일이 되었겠지요. 이러한 토양을 마련해 놓는 것이 민족을 분단시키고 서로 대립하며 살아왔던 우리 세대의 몫이지요. 젊은 세대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고통과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통일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남아 통일 위해 일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 생활을 한 사람. 45년간 감옥 생활을 한 김선명 선생에게 늘 붙어다니는 수석어다. 하지만, 김선명 선생은 이런 수석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언론이 자신의 감옥생활 가운데 '45년'이란 시간을 너무 선정적으로 대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다른 장기수

선생들의 30년, 40년의 감옥생활이 자신의 감옥생활과 다르지 않을진대 45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김선명 선생은 1925년 2월 20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신리 59번지에서 부친 김필중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광산 김씨 광남파의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형조판서를 지낸 김장생의 직계이다. 그의 집은 행세 깨나 하는 집안이었다. 사방 100리가 집안의 땅이라고 할 만큼 많은 농토를 소유하였고, 철마다 소작인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앞마당에 서서 "마님, 서방님" 하며 굽실대곤 하였다. 어린 김선명을 할머니는 꼼짝하게 보호하셨다. 할머니는 그를 울타리 밖으로 내 보내주지 않으셨다. 여름철 물놀이도, 겨울철 얼음 지치기도 그와는 상관없이 없었다. 이런 할머니의 과보호는 무의식적으로 양반 신분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어졌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화는 선생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루는 할머니와 함께 집 뒷산에 있는 조상들의 묘로 갔다. 넓은 잔디 위에 목화 말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 때 일본인 사냥꾼이 멋진 장총을 들고 사냥개와 함께 나타났다. 꿩이 어디에 많으냐고 묻고는 그 쪽으로 사라졌다. '일본인 사냥꾼이 지나간 후 사냥총을 부러워하자 할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선명아, 우리 집에는 저런 총보다 더 좋은 총이 훨씬 많았다. 긴 장총을 한 아름씩 세 아름이나 묶어서 저 강에다 갖다 넣었지."

할아버지는 의병활동을 하셨던 것이다. 구한말 의병은 삼남지방에서부터 일어나, 양평 쪽에서 소멸하였는데, 김선명의 조부가 이 의병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어린 선명에게 사당에 그려있던 태극무늬를 보여주며, '이게 우리나라 기'라고 일러 주셨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일제에 강제 병합된 후 선생의 집안은 예전만 못하였다. 일제가 강제로 토지조사를 벌이면서 땅을 많이 잃은 까닭이었다. 선생은 학교 생활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보통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되어 일본인 학생 하나가 선생보고 '조센징 새끼'라고 욕을 하여 싸움이 붙었다. 선생은 일본인 아이를 때려 울렸다. 다음날 일본인 교장은 무시무시한 표정을 하며 머리를 쥐어박는데, 교장의 눈을 보는 순간 선생은 기절하고 말았다. 그 후 그는 학교가 영 싫어졌다.

16살 때인 어느 저녁, 사람들이 동네 사랑방에 모여 새끼도 꼬고, 이야기책도 보고 있는데 면서기가 들이닥쳤다. 당시 면서기는 쌀 공출로 동네 사람들을 날마다 닭달하고 있었다. 면서기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더니 모인 사람들을 마당에 꿰어앉히고는 행패를 부렸다. 외출했다 뒤늦게 이 모습을 보신 아버지가 분을 참지 못하고 면서기를 두들겨 뺐다. 마침 일가 중의 한 사람이 면장 자리에 있어서, 사건은 수습되

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꼴을 보며 고향에서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 가산도 많이 기울었다. 아버지는 재산 관리에 밝은 분이 아니셨다.

서울로 이사한 곳은 영등포였다. 원래는 하숙을 칠 계획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얻었다. 그리고 아버님은 서울로 이사를 하자마자 담이 들어 허리를 쓰지 못하셨고 간신히 화장실 출입만 하셨다. 가지고 올라왔던 돈 5천 원을 다 써버렸다.

선생은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학교 공부에는 별 생각이 없던 터라, 창화방직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생활을 했다. 창화방직 노동자들은 거의가 지방에서 올라온 여공들이었다. 150명 가운데 남자들은 겨우 여섯 명이었다. 여자들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던 선생은 공장생활이 힘들었다. 공장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거기에서 영등포 토박이들과 사귀게 된 것이다. 별명이 오토바이였던 김상호인가 하는 친구가 주축이었다. 그들과 함께 영신축구단을 만들어 축구시합을 하면서, 일대의 청년들과 교류를 꾸준히 갖게 되었다. 나중에 해방된 후 이들과 사회주의 청년운동을 함께 하게 된다.

창화방직을 그만두고 용산철도공작소에 취직을 했다. 기술을 배우려는 작정을 하고 들어간 것이지만, 철도 공작 기술은 다른 데서는 소용이 없었다. 다시 '조선야술'이란 줄칼 만드는 철공장에 들어갔다.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인정을 받아 기술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일에 비해 벌이는 형편없었다. 똑같은 기술자인데도 일본인 기술자하고는 대우가 천지 차이였다. 게다가 책임자였던 일본인 기술자와 갈등이 심했다. 불만이 고조되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점이었는데, 8·15 해방이 되었다.

8·15 해방! 일본놈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받다가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때 선생은 국민병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었기에 머지않아 징집될 처지였다. 해

방 정국 와중에 선생은 일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분 가운데 하나인 우봉수 선생을 만난다. 우봉수 선생은 친구의 형으로 일제시대 항일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던 분이다. 선생은 우봉수 선생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우봉수 선생은 일찍이 10대에 창화방직공장에서 사회주의를 접하였다. 창화방직공장에 들어가 물감배합 기술을 배우는데 그 기술자가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우봉수를 눈여겨 보더니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게 하였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주었다.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우봉수는 돌아와 교편을 잡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복역을 하였던 것이다.

우봉수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선생은 동료들과 특별자위대를 조직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공장 재산은 민족의 재산이란 생각으로 이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특별자위대 활동은 선생의 시야를 한층 더 넓고, 굳건하게 했다. 전적으로 사회주의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길은 험난해지고 있었다. 미군정은 공산주의 운동을 법으로 금했다.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불법이 되기 전부터 있던 협박이 노골적인 탄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좌우익으로 갈리자, 친척간이나 친구간에도 때리고 맞는 비극적인 일들이 빈번했다. 선생도 영등포 진흥학교 옆에서 대낮에 습격을 받았다. 서북청년단은 집까지 습격해 두들겨팼다.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어머니는 아들을 무조건 옹호해 여기시고 믿으셨다.

해방정국에서 여운형 선생은 늘 마음의 밝은 희망이었다. 여운형 선생의 고향은 선생과 강을 사이에 둔 지척이었다. 어려서는 여운형 선생의 집과 왕래가 있기도 했다. 몇 차례 영등포에서 그분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다.

탄압을 받으며 사회주의 청년운동을 계속하던 중 6·25가 났다. 그는 인민공화국 하에서도 청년운동을 계속했다. 남하했던 인민군이 후퇴하면

서 선생도 인민군을 따라 나섰다. 너무 급작스런 상황이라 가족들과 인사도 못했다. 아버지와 누이동생은 선생이 인민군에 자원했다는 이유로 1950년 말 총살되었다.

의용군에 입대한 그는 인민군 31사 정찰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51년 10월 15일 철원 근방에서 유엔군 병사에게 포로로 잡혀 미군 CIA로 끌려갔다. 거기에서 그는 군복 차림의 일본인을 목격했다. 밥도 물도 주지 않고, 위협을 가하며 취조를 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후 한국군 특무대를 거쳐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하지만, 군법회의는 요식행위였다.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징역'하는 식이었다. 선생은 국방경비법 32조 이적행위와 33조 간첩죄가 적용돼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로서는 가장 가벼운 선고였다. 그는 서대문 육군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서울 고등군법회의에서 15년형이 확정되어 마포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1953년 4월, 느닷없이 대구육군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육군본부 법무감실의 김동수 소령이 불러 내린 것이었다. 당시 수사관들은 국방경비법 33조 간첩죄 위반자들을 적발하는 할당량이 있었고 그가 공작의 대상이었다. 간첩행위를 추궁했지만, 완강히 부인했다. 검사와 검사서기는 그를 야전침대 자루로 마구 때렸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의 손가락을 끌어다가 백지위에 무인을 찍었다. 선생은 그 조서를 바탕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45년 간 살았다. 선생은 지금까지도 무슨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는지 모른다.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동지들이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다. 그 때 선생은 "이왕 조국을 위해 바치기로 한 것,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죽자."고 마음을 먹었다. 이상하리 만치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김봉환 국선변호사가 선생을 찾았다. "서울에서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곳에서 사형을 받았다. 뭘가 잘못되었다. 청원을 하겠다."

고 했다. 그의 연락으로 당숙이 면회를 오고, 동생들로부터 편지가 왔다. 1954년 2월 28일 그는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해졌다.

감옥 생활은 배가 고팠다. 빨치산 관련자와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구타와 굶주림으로 수없이 죽어나갔다. 이들은 공장에 취업도 안 시켰다.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해 운동 나가면 풀을 뜯어먹곤 했지만, 괴혈병으로 이가 빠지는 동지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50년대 중반부터 전향공작이 시작됐다. 대구 형무소는 56년부터 자술서를 쓰게 했다.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불취업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했다. 형무소측은 그를 회유하려고 했다. 전향서를 쓰면 수형자 책임자를 시켜준다는 것이었다. 수형자에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선생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61년 8월 8일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대전형무소 특별사로 이감됐다. 특별관리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동지들은 광주, 전주, 목포, 대구 등지로 분산 수용되었다. 그러다 69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일어난 후 그는 다시 대전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 후 선생은 26년 간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박정희 정권은 73년부터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대적인 전향공작을 펼쳤다. 대전의 경우 교무과장 밑에 전담반장을 두고, 그 밑에 계장, 3개의 조장을 두었다. 조장 밑에는 주임과 교회사들을 배치했다. 교회사들은 장기수들을 몇 명씩 전담했다. 그들은 제일 높은 사람(대통령)의 지시라며 "이번에 전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며 전향을 종용했다. 선생은 교회사에게 말했다.

"내가 전향서를 쓰면, 나 때문에 죽은 아버지와 동생들을 어찌 볼 수 있겠소. 저 자식은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식구들 죽이고 저만 살아 나왔다 하지 않겠소."

교회사도 선생의 이야기를 듣더니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전향 공작반은 폭력범들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범 2~3명을 대기시키고는 장기수들을 한 사람씩 집어넣었다. 선생은 강패 폭력범들에게 끌려 들어가면서 '정치적 생명을 살리고, 육체적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각오했다. 미군들이 쓰는 가죽장갑을 끼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주먹으로 맞다가 강패의 사타구니를 붙잡고 늘어졌다. 죽겠다는 강패를 간수가 달려와 간신히 떼어놓았다. 화가 난 강패들은 각목을 들고 선생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각목 앞에 허물어져 꼼짝할 수 없이 되었다. 온 몸에 허물이 벗어지고, 멍이 들었다.

그래도 선생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진다. 싸워서 이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앉았다. 그는 전향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두들겨 맞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양심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저항하였을 겁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나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타 끝에 병이 생긴 장기수 선생도 여럿이었고, 맞아 죽은 사람도 여럿 목격하였다. 최석기 선생은 1974년 4월 4일에, 박용서 선생은 7월 20일 아침에 숨을 거두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향공작은 이런 희생이 잇따르자 주춤해졌다. 하지만, 전향공작은 그 후 9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선생은 인간의 사상을 권력의 힘으로 바꾸어보려는 발상은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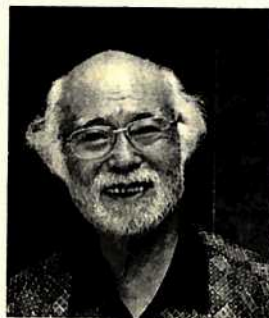
1995년 8월 15일 대전교도소 문을 나선 선생은 그 해 구순의 노모를 45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 뵈었고, 얼마 후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다. 출소한 후 지금껏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다른 장기수 선생 7분과 지내왔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장기수 선생들의 9월 북송이 확정된 지금, 선생은 북으로 가지 않고 남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북도, 남도 모두 나의 조국 아닙니까? 여기에 남아 통일을 위해 할 일을 찾아 볼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와 한 약속도 있구요."

징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좋은 분들을 수없이 만나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선생. 북으로 가지 않고 남에 남아 통일을 위해 할 일을 찾고자 하는 선생의 소원이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 옹골찬 열매로 결실하기를 바란다.



평생 두 번 울었는데



“나는 건강에 대해 신조가 있습니다. 마음을 즐거우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치료해야 효과도 좋습니다.”

출소 후 ‘수지요법’을 배워 아픈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김수룡 선생. 사랑하는 부인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병마를 다스려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선생에게선 언제 봐도 마음의 건강함이 넘쳐난다.

선생의 고향은 본래 경북 성주인데, 아버지가 일제의 탄압과 지주들의 수탈 때문에 고향을 떠나 경남 밀양의 토건회사로 옮겨가 일하게 되면서 그 곳에서 태어났으며, 자라면서 수시로 거처를 옮기며 살았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으로 대판관서 공업학교를 마치고, 45년 해방되기 전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해방이 되자 간혀 있던 애국 독립운동가들이 출감하여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활동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은 각 도, 구, 면 등에서 자치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해방된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군정과 결탁하여 포고령을 내리고, 일제시대의 앞잡이였던 이들이 계속 관리를 맡으면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지방에

서는 ‘건국준비위원회’와 같은 청년운동이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좌우가 대립하면서부터는 건국준비위원회에 관련했던 이들 대부분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빨치산’이라 불리게 된다.

선생은 당시 청년운동에 참여하다 46년부터 47년까지 감옥 생활을 했고,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외치다 49년 다시 체포되었다. 그리고 50년 6월 28일 인민군에 의해 구치소가 부서질 때 풀려나, 토지 개혁 세미나에서 ‘5정보(15,000평)이상 땅을 가진 지주의 땅은 소작농에게 나눠준다.’는 규약을 교육받고 지도원이 되었다.

“난 처음부터 공산주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펼치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북쪽이었던 것이지요.”

선생이 북으로 올라간 때는 50년 9월 2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토지개혁을 지도하다가 후퇴 명령을 받고서다. 가족들은 당시 부산에 있었지만 미군이 북상하고 있어 혼자 올라가게 되었다. 그 후 53년 정치 공작원으로 남쪽에 내려왔다가 체포되었다.

20여 년 간의 수감 생활을 더듬어 보면 빼 놓을 수 없는 기억은 아내의 면회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아내는 먼길과 철차의 까다로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3분의 면회를 잊지 않았다. 또 커 가는 자녀들에게 늘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다.”고 가르쳤다. 교도소 간수가 “열녀비 세워주세요.” 할 정도로 아내의 면회 정성은 대단했다.

그러한 아내였기에, 출소한 후 같이 장사도 하고, 아내가 몸져누워 25년을 앓는 동안 정성스레 병간호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별한 아내를 잊지 못한 선생은 ‘당신을 땅에 묻고’ 등의 시를 썼고, 이 시들을 모아 1996년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시집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감옥 안에서의 생활, 출소 후 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시집에서 ‘밥치기’, ‘목욕날’, ‘떡방’, ‘포탄피 밥그릇’, ‘면회’ 등등의 시를 읽으며, 감옥 안에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인권 유린 등으로 슬하게 고생

하셨나 보다 싶어, 이에 대해 물었으나 선생의 대답은 달랐다.

“난 고난받은 것이 아니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즐겁듯이 나 또한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내가 가지고 싶은 사상을 가질 수 있었기에 즐거웠지요.”

선생의 이런 가치관에 고개를 숙이며, 한반도의 젊은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지 물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해 준다고 변하나. 다들 반공과 이데올로기에 몰들어져 있어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저 내 아이들 얘기를 해 줄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아들과 딸이 편지를 쓰는데 다 반공 얘기 뿐이라. 그래, 출소한 뒤 내가 아들에게 한 말은, 같이 살면서 한 달에 두 번씩 나랑 술 마시자고 한 것뿐이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술만 마셨지. 1년이 지나자 아들이 술 마시고 들어와 내게 무릎을 꿇더군. 내 신조는 가족부터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내 가족부터 나를 믿어 주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첫 걸음이지. 작은 아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싸이클 국가대표 선수였어. 어느 날 아시아 대회에 나간다고 하더군. 난 당연히 나 때문에 못 나갈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얼마 뒤에 금메달을 땀다는 거야. 출소한 뒤 가장 먼저 아들에게 금메달을 보자고 했더니, 그제야 출국금지로 못 나갔다고 하더군. 내가 평생 두 번 울었는데, 감옥 안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랑 이 때였지.”

오래 전 일인데도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는 선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정치는 대중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 대중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도록, 대중이 나를 반기고 찾도록 해야 하는 거야.” 지금도 산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선생님을 보면서, 바로 자신의 생각을 삶으로 체화해 내며 사는 모습을 젊은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 김영태 선생

48년, 부르고 또 부르는 망향가



서둘러 떠났는데도 광주에 도착해 보니 벌써 한낮이 지나 있었다. 광주를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내내 봄별이 너무 좋아 흥얼대던 노래는 광주에 가까워질수록 느린 곡조로 변하고 있었다.

‘봄별 내리던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음음음...’

늦은 점심을 먹고 찾아간 ‘빛고을 탕제원’에서는, 움푹 들어간 한 쪽 눈에 안대를 한 김영태 선생이 환자를 보느라 분주하다.

김영태 선생은 31년, 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에서 태어났다. 일제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일제의 수탈에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넘어가 생활한 적도 있는데, 그때 선생은 중국 빨치산 투쟁에 대해 어렵듯이 귀동냥하며 유년기를 보냈다.

해방이 되던 45년 선생은 당산 인민학교 6학년이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한 채 다시 1년을 6학년으로 지내야했다. 해방과 함께 세워진 인민학교에서는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학생들을 그대로 졸업시킬 수 없다며 1년씩 더 다니게 한 것이다. 인민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옥천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새조국 건설’에 힘을 보탤다. 그러나 50년 전쟁의 발발은 선생의 순탄하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북에서는 윗기형식으로 인민군을 모집했습니다. 그 때 동네친구들과 윗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길을 걷는데 B29기 2대가 썩아 소리를 내며 바로 머리위로 낮게 내려오더니 1톤짜리 포탄을 2개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넘어지고, 달아나고 그야말로 혼비백산 했더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 폭격을 경험한 겁니다.”

그 길로 선생과 친구들은 인민군대에 지원하였다. 친구들끼리 가면 한 부대로 가는 줄만 알던 순진한 열아홉 청년이었다. 선생은 진남포 제일 인민학교에 개설된 임시훈련소에서 보름간 훈련을 받고 정식 인민군 자격으로 전선으로 투입된다. 소속된 부대는 인민군 10사단 직속부대인 운수중대였다. 부대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 왔는데, 말은 역할을 포탄을 차에 싣는 일이었다.

“음력 8월 추석 다음날로 기억됩니다. 부대원 중 10명을 뽑아, 그 사람들에게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명령을 하더군요. 그 때 제가 뽑혔는데,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본대가 먼저 후퇴한 후 뒤에 남아 군수 물자를 소각한 후 본대와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10여 명은 번갈아 보초를 서며 불을 놓고 달리고, 또 다시 불을 놓고 달리며 1주일만에 겨우 본대를 따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풍령을 넘어서며 10사단 인민군들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다. 51년 1월 하얗게 눈이 쌓인 추풍령에서 ‘세군무기병’에 걸린 부대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한 겨울에 재귀열이라니, 열이 오르고 머리가 빠지고, 심지어 귀가 멀어가며 죽어 가는 대원들이 생겼다. 선생도 ‘세군무기병’에 걸려 부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양에서의 일이다.

“환자 2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새벽에 국군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때 의무부대에 책임자인 준위 여성동지가 기억에 또렷합니다. 권총을 빼 들더니 환자들은 모두 피하라 하고 자신은 그대로 앉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0여 명 부상병 중 살아 남은 대원은 60명에 불과했다. 지휘관도 지도도 없이 산 속을 헤매던 중 이현상 부대를 만나 남부군에 합류하였다. 선생이 참가한 첫 ‘전투’는 속리산 입석부락에서였다.

국군 한 대대가 남부군을 토벌하기 위해 입석부락에 주둔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남부군은 기습작전을 벌였다. 당시 선생은 국군 보초들이 철수하는 것을 뒤쫓아 내려가다 기습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총을 쏜 경험이 없던 선생은 총을 쏘며 달아나는 국군에게 ‘손 들라우, 손 들라우’ 하며 종용해도 군인이 계속 총을 쏘며 저항하자,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다고 한다.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 탓일까, 선생은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했다.

“포로들을 데려와 하루를 재우며 교양을 시킨 후 그 다음날 다 보내 주었습니다. 부상병은 치료해 다른 군인에게 업혀 보내고 집이 먼 군인에게는 여비까지 줘서 보냈지요. 그런 식으로 매번 포로를 풀어 주었는데, 한 일화로 한번은 잡혀온 포로가 이번이 아홉 번째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옷이 낡았으니 미안하지만 좀 바꿔 입자고 하면 모두 서슴없이 벗어주고 바꿔 입고 떠났습니다.”

‘이현상식’ 포로대우란다. 유격대 생활에 익숙해진 선생은 추천을 통해 이현상 호위대 대원이 되었다.

“겨울에 섬진강을 건너던 일이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겨울의 섬진강은 정말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간부회의가 있을 때는 미리 발을 걷고 건너가 주위를 살피고 건너와 간부들이 건너오게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 9일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흐레를 굶으니 입에서 침만 줄줄 흐르고 힘을 하나도 못쓰게 되더군요.”

비장한 식량을 가지러 보낸 호위대원들은 감감 무소식이었고, 벼랑 위에서는 공격이 계속되었다. 이현상 총사령관이 ‘어디를 가도 좋으나 양

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로 부대원들을 해산시키려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죽기 마련인 것'이란 생각으로 일어나 죽을힘을 다해 걸었는데도, 그 '기민하던' 빨치산들이 하루종일 걸어 넘은 것은 고작 골짜기 하나였다. 구사일생으로 쌀을 구하게 되어 밥을 지었다.

"모두 세 손가락을 넘기지 못한 채 토해내더군요. 속이 오랫동안 비어 있던 탓에 밥을 넘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죽을 끓여서야 겨우 아흐레만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체포된 것은 54년 2월 함양에서다. 헌병대를 습격해 헌병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헌병들은 속옷바람으로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후, 호각과 화이바까지 착용하고 입산하던 길이었다. '오랜 산 생활 때문인지 총을 잡고 싶은 예감'을 떨칠 수 없던 차에, 담뱃내가 나 수색하기 위해 앉으며, 뒤따라오던 대원들에게 손으로 제지를 표시하던 순간이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선생은 정신을 잃었다. 군인이 쏜 첫 방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흐릿하게 내 양옆에 버티고 선 헌병 두 명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때 간호병이 다가와 '하필이면 눈을, 하필이면...' 하며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짓길래 거울 좀 보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봐서 뭐 하겠냐'며 갖다주지 않더군요."

반쪽 난 조국을 반쪽 눈으로만 살아야 하는 갓 스물넷이던 잘 생긴 미남 청년. 그 미남 청년은 '폐니실린을 하도 맞아 굳어진 엉덩이'로 사형을 선고받고, 남원 포로수용소에서 대구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년을 사형수로 지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조반을 받아 식사를 막하려는데 호명이 있었다. 사형집행은 아침녘이었다. 마지막 떠나는 길이라 생각하며 같은 방에 있던 동료들과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형집행을 위해 불러낸 것이 아니라 20년으로 감형되었으니 다른 방으

로 이감된다는 것이었다.

"재판 때 국선 변호사의 변론이 아마 영향력으로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판사님,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도 이 나이에 북에 있었다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단지 그가 속한 나라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바위도 소화시킬 수 있던 나이에 20년 감옥생활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나 혼자 어떻게 20년을 사나.' 하는 고립감으로 들어간 감옥에는 그러나 무기수들이 수두룩해 오히려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6년 동안 눈에서 계속 고름이 나와 병사생활을 해야했던 선생은 71년 대전교도소에서 출감한다. 4·19의 영향으로 감형된 형을 다 살고 난 후였다.

출감 후 선생은 봄, 여름, 가을에는 집을 짓는 목수로, 일거리가 없는 겨울에는 뽕튀기 장사로 열심히 생활한다. 낮선, 아무런 연고 없는 타향에서 선생은 그 당시에 60만 원하는 자기 집도 장만하고 목공소도 차렸다.

그러나 76년 열혈청년에서 성실한 마흔 다섯 살의 중년 노동자로 성숙해진 선생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다. 75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 때문이었다. 청주 정보부 지하실. 건장한 다섯 명의 남자들이 선생을 둘러쌌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어디다 숨겼냐, 무전기를 내놓으라.'며 무지막지한 몽둥이 찜질을 시작했다. 8일간의 매 타작과 구둣발로 허벅지 짓이기기... 짐승에게도 가할 수 없는 고문, 고문.

구두창까지 다 들어내며 뒤졌지만 무전기커녕 무전기 안테나 비슷한 철조각도 찾지 못했으면서도 형사들은 선생을 청주 감호소에 가두었다. 모진 고문으로 허리를 펼 수 없던 선생이 들어간 방은 다행히 이두균 선생(현 민중당제원 운영)이 있던 방이었다. 이 선생이 임시로 갈아 만든 침을 허리에 꽂아주니 그제서야 선생은 허리를 펼 수 있었다. 그 일을 계기

로 감옥에서 내내 열심히 침술을 익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면서 13년만에 감옥문을 나선 선생은 청주 갱생 보호소에서 생활했다. 남쪽에는 가족도 고향도 집도 없는 데다, 이전 쉰 여덟 증늬은이의 몸이었다. 그러나 바지런한 선생은 목수 일로 두 달만에 집세를 장만해 보호소 생활에서 벗어난다.

94년 6월, 선생님은 우연한 기회로 고 윤기남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목수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선생은 뺑소니차에 치여 기절했다. 그때 동네 아이가 쓰러져 있는 선생을 발견하고 와이셔츠 윗주머니에서 한겨레신문 지국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고,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남로당 순천군당 조직책'을 지낸 고 윤기남 선생이 달려 온 것이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선생은 윤기남, 김인서 선생과 함께 현재의 빛고을 민중 탕제원에서 생활하며 침술을 생업으로 삼게 되었다.

94년 10월 아침. 한 차례 손님을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우체부가 두 통의 편지를 마당에 떨어뜨리고 갔다. 다가가 주워보니 한 통은 북에 있는 이인모 선생에게서 온 안부 편지였고, 다른 한 통은 발송인, 수신인이 모두 영문자로 표기된 편지였다.

반가운 마음으로 이인모 선생의 편지를 읽던 중, '나한테 이런 편지가 올 일이 없지, 집 주인에게 온 것인가?'하고 밀쳐 두었던 영문 표기 편지에 자꾸 마음이 끌려 다시 집어 읽어보았다.

'IM YOUNG TAE'(김영태)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님의 그토록 못 잊어하는 아들 룡제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목매어 부르며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부자간의 감격적인 상봉의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들입니다.', '눈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후 선생은 3통의 편지를 더 받았고 95년 6월에는 일본에서 아들이 건 전화도 받았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두고 남으로 내려온 지 44년.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의 상상력은 아들의 성장을 따라 잡을 수 없었고, 어떤 때는 목이나 겨우 가누며 눈이 마주치면 생긱거리던 그 때의 모습 위로 겨우 키워온 상상력이 주저앉아 난감하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에게는 2남 1녀의 자식이 있다.

김영태 선생은 포로다. 정식 인민군의 자격으로 남으로 내려왔고, 본대를 잃어 남부군으로 유격투쟁을 벌이다 체포된 포로다. 1995년 4월 18일 기독교 회관. 전 인민군 출신인 김영태, 김인서, 함세환 선생은 "우리는 엄연한 전쟁포로로 제네바협정과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 1953년 북송되어야 했습니다. 남북화해의 장을 여는 차원에서라도 죽기 전에 가족과 친지들이 살아있는 고향, 북녘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정부와 사회단체, 종교, 언론계에 여생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송환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그리고 이 호소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다하기 전에 아들 얼굴이라도 만져 보는 것'이 소원인 선생님의 꿈은 언제쯤에야 나래를 펼 수 있을까.

아버지...저, 화심입니다.....



53년 초겨울,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덟 살 난 화심의 발걸음은 유난히 경쾌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발을 재게 놀려 집으로 달려가며 화심이는 생각했다. '오늘 아침에 까치가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도 울어댔을까?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 댔는데...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아버지 말고 누가 있어? 아버지가 분명히 오늘은 이 화심이가 보고 싶어서 돌아오셨을 거야. 이제 다 컸으니 응석을 부릴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보면 의젓하게 인사를 드려야지. 하하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

집으로 돌아온 화심이는 냉큼 댕돌부터 살폈다. 큼직한 아버지의 신발을 찾는 눈치였다.

'까치는 뭐하러 우리 집 앞에서 우는 거야? 아버지도 안 오시는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어른들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봐.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화심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그래도 화심이는 매번 까치만 울면 가슴을 설레며 등교를 했고, 학교 파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왔다. 속으로 내내 '까치야, 이번에도 나를

끌당먹이면 안 된다. 아버지, 아버지...'를 속으로 부르며.

어린 화심이는 이제 나이 오십의 중년 부인이 되었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의 아버지 김인서 선생(71세)은 전쟁포로로 이 땅에 묶인 채, 중병을 앓고 있다.

김인서 선생은 26년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면 무룡리에서 났다. 아버지 김병근은 소작농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맹산군 옥천 공립소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아버지를 도와 허드렛일을 했다.

"그때는 뭐 힘이 딸려서 일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거저 풀베고 오양간(외양간)을 치우고 자잘한 일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일제의 민족 차별이 심하구나 하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네다."

집안의 농사일을 돕다 취직을 하려 하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인 포스터를 보면 꽤 괜찮겠다 싶은 직장들의 포스터 밑에는 꼭 단서가 붙어 있었다. '단, 내지 본적을 가진 자에 한함.' 일본인들에게만 취업이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43년 선생은 시험을 통과해 서선 중앙철도 주식회사에 들어갔다. 입사 후 선생은 평덕선 가창역 역수(역무원)로 근무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일제 민족차별에 대한 반감을 느꼈다. '저런 바보 같은 녀석'이란 말을 듣던 일본인이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진급하고 월급도 많이 받아 갔기 때문이다. 또 선생이 역원 중 유일하게 신문을 사 보는 사람이었던 사실도 민족 의식이 쉽게 짝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역수로 일을 하던 중 44년 10월 선생은 정인화를 맞아 혼례를 올렸다.

"내가 열 아홉이고 그 사람이 열 일곱에 결혼을 했습네다. 지금은 그게 빠른 나이지만 그 때는 안그랬습네다. 그때만 해도 남자 나이 스물만 넘기면 남보기 부끄러워하던 때였으니까... 그 사람은 28년 2월 2일 생인데, 80년 동맥경화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네다. 46년 5월에 첫 딸 화심이를 얻었고, 50년 3월에 둘째 딸 정심이를 얻었지요."

선생은 46년 간을 헤어져 산 부인과 딸들의 생일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꼭 만나 '그간 수고 많았소. 그리고 애들아, 이 아버지는 떨어져 있어도 너희들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하며 두 손 잡고 한 번이라도 생일상을 보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선생은 철도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46년 5월에 입당했다. 입당 후 선생은 봉인면 면당 위원장이 되어 정치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46년 민청 맹산군 옥천면 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작해 48년 4월에는 민청 평안남도 맹산군 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된다. 49년 2월, 선생은 중앙당 학교에 입학해 그 해 6월말 졸업한 후 다시 전쟁 전까지 민청 평안남도 정치문화교양부 부부장으로 생활했다.

그리고 전쟁. 선생은 50년 8월, 평양을 떠나 광주로 갔다. 두 여동생과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다섯 살배기 큰 딸, '들어 얼러 주면 웃기나 하는 정도'였던 견지도 못하던 다섯 달 된 둘째 딸을 뒤로하고 광주로 내려와 민청활동을 하던 선생은 그 해 9월 국군에 밀려 빨치산이 되어 지리산에 입산하였다. 그 후 51년 12월 국군의 대토벌로 생포되어 광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포로로서.

체포 후 선생은 52년 고등군법회의에서 '전쟁시하 비상조치령 위반' 혐의로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69년, 17년 만에 만기 출소했다. 60년 4·19때 감형조치에 따라 3년이 감형된 것이다.

그 후 71년 반공법 위반으로 2년 복역, 76년 또 반공법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는다. 81년 만기출소와 동시에 사회안전법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한 선생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후인 89년 10월, 청주보안감호소에서 33년 7개월 동안 이어진 감옥살이를 끝내고 출소하게 되었다.

출소 후 선생은 여러 잡일을 닦치는 대로 했다. 도로 미화원으로, 막일

을 하는 일용 노동자로, 채석장에서 돌을 지어 나르는 일을 하며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했다. 그러다 간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고 3개월 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퇴원한 선생은 조선대 구내 서점에서 일을 하다 93년 광주 '빛고을 탕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복송되어야 할 또 한 명의 전쟁포로 김영태 선생과, 고 윤기남 선생님과 함께.

그러던 중 선생은 북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되었다. 93년의 일이다. 92년 『말』 지에 실린 선생의 기사를 보고 북의 가족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정말로 죽을 줄로만 알았던 선생의 생존을 확인했고, 그리고 3년이 지난 95년 4월, 선생은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전화통화라도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간 딸 화심의 전화를 통해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 저, 화심입니다....."

'말을 하도 일찍 배워, 떠나올 당시 못하는 말이 하나 없던', 딸 김화심은 45년 만에 불러보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선이 넘은 어른이 되어서인지 다섯 살 때만큼 쾌활하게 아버지 앞에서 이말 저말을 하지 못했다. 선생은 나름대로 두 딸과 여동생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통일원에서 답변서가 날아왔다.

'귀하가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접촉 후 그 결과를 별첨 양식에 의거, 우리 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

그러나 금년 7월 이후로는 영 감감 무소식이다. 승인을 해놓고도 통일원은 다시 함구해버렸다.

낙심한 탓일까? 선생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신라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 7월말입네다. 밤 9시경인데 입술이 갑자기 뻗뻗해지고, 일어나

니 어질어질하더니 왼쪽 손과 발에 마비증상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모세혈관이 막혀 그렇다는데….”

광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단식원에 가 단식도 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서울 한방병원으로 옮겨왔다. 정밀촬영 결과, 이미 두번 혈관이 막혔었고 한번 터진 자국이 사진에 찍혀 나왔다.

선생의 말소리는 다소 어눌하다. 중풍 탓이다. 또 선생의 걸음걸이는 아슬아슬하다. 왼쪽 다리를 떨며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신다.

이제 선생님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니 다른 전쟁포로인 김영태 선생, 함세환 선생과 함께 이미 고향으로 되돌아갔어야 했다. ‘정전협정’ 제3조 51항에 의해 53년 7월 27일 이후 60일 내에 북으로 송환되었고,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해 송환되었어야 했다.

“온 민족이 당하고 있는 설움인데 나만 빠져나가려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잖습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지만……. 하지만 우리의 북송문제는 남북간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규정된 것을 집행하는 문제일 뿐인데. 그리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의 시초가 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선생은 왼손을 떨면서도 내내 딸이 보내온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하도 읽어 이제 외울법한 편지를 보이고 싶은 것이다. 큼직한 글씨로 써 보낸 편지를.

말끝을 흐리는 선생의 병들어 검어진 얼굴이 몹시 쓸쓸하고 허전해 보여 창 밖으로 눈을 돌린다. 아침부터 내리던 빗발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것 같다.

‘저 번에는 저의 편지가 깨알같이 직접 읽기 어려웠더니 불효막심한 이 딸을 용서하시고 이번에는 큼직하게 써 올리는 이 편지를 읽으시며 아버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신 듯이 잠시나마 기쁨 속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버님이 그 지긋지긋하던 감옥살이에서 벗어난 후에도 외진 돌산에 묻혀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어느덧 2년 세월이 흘러갔으나 야속하게도, 우리 부녀의 상봉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달랠 길이 없습니다. 옥살이에 골병이 드신 연로하신 아버님이 일점 혈육도 없는 외지에서 장정들도 힘겨워하는 험한 돌산을 날마다 오르내리시고 밤마다 함바집에서 저희들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들도 있고 평양에 좋은 집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적 없는 외진 산 속에 함바집을 침소로 해야 하고 칠순을 바라보는 고령에 채석장에서 울짐을 저야 한단 말입니까?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이 세계 그 어느 다른 대국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로 불과 하루 길도 안 되는 지척인데 아버님은 응당 오셔야 할 북으로 오지 못하시니 절통하기 그지 없습니다.’(94년 4월 김화심의 편지)

남을 돕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김인수 선생은 24년 5월 27일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셨다. 당시 조선운수주식회사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 김덕화와 어머니 정망희의 장남으로 태어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그리 궁핍하지 않게 보냈다. 대구 수창공립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가 직장을 청주로 옮겨 39년 청주중학교에 입학하였다. 3학년 때는 다시

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남도 원산으로 이사하게 되어 선생은 학교를 중퇴하고 원산에서 철도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이후 조선운수주식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해방 후에는 대구로 귀향, 경북도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당시를 선생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별다른 사상적 지향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일본 놈들이 하는 운동인 야구나 유도를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공장을 다닐 때는 44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를 장남인 내가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그간 조국이 일제의 착취를 당하면서 식민지로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구지역 정서와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방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 후 선생님은 민청에 가입했고, 47년에는 조선노동당에 입당, 정치공작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던 중 도당조직부장의 변절로 인해 도내공무원 조직체계가 누설되면서 48년 6월 미군정포고령 2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6개월 간의 징역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선생은 49년 9월 입북했다.

이 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당원으로, 정치공작원으로 일을 하던 선생은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남으로 내려와 미군포로수용소에서 일하게 된다. 50년 9월 13일 후퇴를 시작하여 평안북도를 거쳐 만포에 이르게 되고 이후 곡산에서 전방사업을 담당하였다. 52년 8월에는 평양으로 소환되어 그곳에서 일하면서 '평양대폭격'을 당하는 등 전쟁 기간 중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하였다.

정전 후 선생은 평양북구지회부에서 연유창고장으로 일하다가 54년 말 도당 간부학교에 입학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받은 뒤 황해도 연산군에 배치되어 축산부장과 리위원장으로서, 60년엔 황해남도 광산의 업무부 지배인으로 일하는 등 조국 재건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리고 54년 11월 친구의 주선으로 만난 한성복과 결혼, 1남 2녀의 자녀와 함께 한번의 다툼도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선생은 62년 8월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던 중 강원도 대관령에서 안영기 선생과 함께 방첩대에 체포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국군 1개 연대가 동원된 살벌한 상황이었어서 선생은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다.

선생은 2년 가까운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3심에서 무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재판 과정 중 방첩대에서 전향공작의 일환으로 남에 남아있던 가족을 찾아주겠다는 회유를 할 때는 참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감옥 생활도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한 달에 5번 정도 운동을 시켰는데 이걸 제외하면 철저한 독거 생활